

#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움직임 주목

## 정당·시민단체 개정안 마련 고심... 불교계도 적극 참여해야

‘환경 파괴 면죄부’라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이하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불교계도 법개정에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주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왜 개정해야 하나

환경영향평가법은 대형 사업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환경파괴와 영향을 미리 분석해 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제도다.

그러나 지금의 환경영향평가는 규제보다 피해최소화에 무게를 두고 있어 형식화되기 쉽고 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함에 따라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또 지역 주민과 전문가들이 개입하기 어렵고 부실평가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북한산 문제의 경우 터널 입·출구 부근에 법적보호종인 고란초 등이

서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서에는 보호대책이 전혀 없었다. 또 교통영향평가 승인처분은 위법으로 드러났으며, 환경영향평가 또한 협의절차가 무시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전성산 문제 역시 유효기간 7년이 지나도록 재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 30여종의 보호종식물이 누락됐으며 22개의 늪과 12개의 계곡, 39개의 저수지에 대한 언급도 전혀 없었다. 더 중요한 것은 두 사안에서 ‘수행 환경 보호 대책’이 전무했다는 것이다.

녹색연합 서재철 자연생태과장은 “지금까지의 환경영향평가법은 난개발 사업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존재한 수단에 불과했다”며 “이제부터라도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게 법의 내용을 전면적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 개정안 주요내용은 무엇인가

환경부는 올해 7월 환경영향평가법을 부분 개정했다. 관련서류 공개를 의무화

하고 중요평가항목에 대해서는 중점평가제를 도입하며 설계업자가 설계와 평가를 동시에 실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개정안이 평가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지 않았고 구속력을 갖는 강제조항을 두지 않는 등 여전히 미흡하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이 준비하고 있는 새 개정안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단 의원은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내용을 승인기관장 및 전문가에게 통보하는 것 외에 지역 주민도 그 협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주요평가내용이 허위 또는 부실하게 작성된 경우 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주민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평가 내용이 부실하거나 누락된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응할 수 없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서

의 재평가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반드시 재평가를 요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과 관련해 단 의원은 “대형개발사업이 추진될 때부터 철저하게 환경영향평가 준비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 불교계 대책

북한산과 전성산 문제에서 알 수 있듯이 불교계는 향후 대형개발사업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적지 않은 사찰이 아직 개발의 손길이 닿지 않은 산중에 있기 때문이다.

불교환경전문가들은 “사안이 발생했을 때 과거와 같은 사후약방문식 대책은 무의미하다”며 “사전에 법과 제도를 검토하고 이에 따라 각종 사안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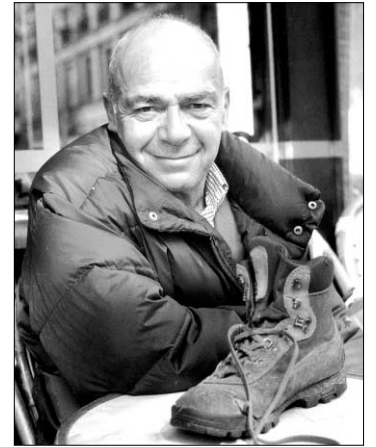
환경영향평가법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지음 스님도 “수많은 폐해를 낳아 온 환경영향평가법은 하루 빨리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철주 기자 yjc@buddhapia.com

## 일문일답

# “걸으면서 나를 성찰하고 인생 설계할 수 있었다”

### ‘나는 걷는다’ 저자 베르나르 올리비에



베르나르 올리비에를 걷기를 통한 자아 찾기와 성찰을 강조했다.

1999년 터키 이스탄불을 시작으로 중국 시안(西安)까지 실크로드를 따라 1만2천km를 걸어서 여행한 베르나르 올리비에 씨(66)가 자신의 경험을 엮은 도보여행기 <나는 걷는다> 홍보차 11월 4~10일 한국을 방문했다. <나는 걷는다>는 프랑스에서 2000부터 2003년까지 발간돼 20만 부 이상이 팔리는 등 베스트셀러가 됐으며, 5개 국어로 번역돼 전 세계에 출간됐다.

올리비에 씨와 가진 일문일답. ▲예순의 나이에 도보여행을 하게 된 계기는?

“본격적인 실크로드 대장정을 떠나기 석달 전에 파리에서부터 스페인의 데 콤포스텔라까지 3개월간 2325km를 도보여행 했다. 나는 걸으면서 내 존재이유를 찾으려 했었고, 두 가지를 걸심하게 했다. 하나는 내가 살면서 누렸던 행운에 대한 감사와 환원의 의미로 여행을 다른 사람을 도우며 살아가는 것. 이것은 2000년 보호시설에 수감된 비행 청소년의 교화를 위한 쇠이유(seuil, 문턱이라는 뜻의 프랑스 어이자 ‘구두밀창’을 뜻하는 라틴어) 협회를 창설하는 계기가 됐다. 두 번째는, 계속해서 걸겠다는 결심이었다. 이것이 실크로드 대장정에 오르게 만든 계기가 됐다. 길을 따라가며 내 자신을 성찰하고 싶었다.

▲걷는 것이 자기성찰에 적합한가? - 모든 종교는 성지 순례지를 갖고 있으며 종교에 귀의한 사람들은 순례길에 오른다. 이것은 걷기가 단순히 이동수단이 아니라 자기를 성찰할 기회를 주고 철학적 생각을 하도록 돕는 기능이 있다는 뜻이다. 자기를 성찰하기 위해서는 혼자서 여행할 것을 권한다. 처음에는 지루하게 느껴졌지만, 혼자 여행하는 동안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어려운 난관이 부딪칠 때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자아를 단련하게 된다.

▲걷기의 매력은? - 걷는 동안 우리 몸은 엔돌핀을 생산해낸다. 인간은 차를 타도록 만들어진 생물이 아니라 걷도록 만들어져 있는 생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걷는 동안 우리 몸은 모든 감각이 깨어나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완전한 통합을 이루게 된다. 걷기의 또 다른 매력은 타인과의 만남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대장정을 끝내고 얻은 것은? - 친구들을 얻었다. 그리고 내가 남은 여행동안 무엇을 하고 싶지 그 방향을 정하게 됐다. 처음 여행을 시작할 때는 내 자신에 대한 해답을 찾는 데만 몰두했다. 그러나 길을 걸으며 사람들을 만나는 동안,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받은 게 얼마나 많은지 깨닫게 됐다. 여행을 끝내고 나자, 자연스럽게 타인을 도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걷기를 통해 자기자신을 성찰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해 줄 말씀은? - 도보 여행을 떠나기 전에 ‘자신이 여행하는 중에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목표를 정해야 한다. 목표가 없으면 도보여행은 단순한 도피를 위해 떠나는 방랑여행이 될 뿐이다. 인간은 자신의 인생을 적절히 조절하고 자신의 존재이유를 알게 될 때 더 큰 행복을 느낀다. 내게 물질적 풍요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다만 사회가 용인한 테두리 안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봉사하면서 살 수 있고 내 곁에 친구들이 있다면 그것으로 나는 만족한다. 올리비에 씨는 쇠이유 협회를 통해 비행 청소년들이 적절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나는 걷는다> 인세를 모두 협회에 기부하고 있다는 그는 “현 사회는 양만 보고 팔리빨리 달리는 경기에 몰려 있다. 그러나 내게 지혜는 ‘느림’을 행함으로써 비로소 얻어졌다”고 말한다. 이은비 기자

# 전등사 ‘숲길 가꾸기’ 나섰다

## 강화 삼랑성 역사문화조직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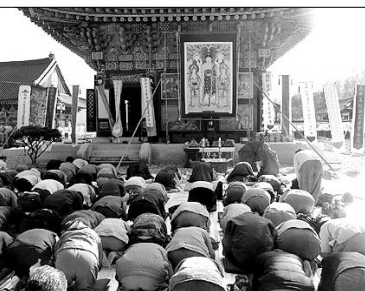
경기도 강화 삼랑성 역사문화조직위(위원장 공동위원장 계성 스님·지음택, 이하 역사문화조직위)가 전등사 주변 숲길 가꾸기에 나섰다. 역사문화조직위는 ‘사생명의 숲’에서 공모한 ‘숲길 가꾸기’ 사업에 전등사 동문과 대웅전, 남문을 잇는 숲길 조성 계획을 제출, 지난 10월 지원 단위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내년 5월까지 5,000만원의 녹색자금을 지원받아 숲길 가꾸기 프로그램을 실행할 예정이다.

전등사 ‘숲길가꾸기’를 계획하면서 인근 숲의 실태 파악에 주력해온 역사문화조직위는 우선 훼손된 주변 환경 개선사업으로 침식 토사 복구, 잡목 간벌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숲 방문자들의 안전을 위해 계단과 같은 안전시설 설치 작업도 병행한다.

역사문화조직위 공인장 기획과장은 “전등사 방문객들이 숲을 제대로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강강 기자 kangkang@buddhapia.com

## 장수 죽림정사, 일체영가 천도



국운웅성과 남북통일을 발원하는 천도 법회가 장수 죽림정사에서 봉행됐다(사진). 죽림정사는 11월 7일 조실 도문 스님과

세계청소년 대각사상 교육교화 후원회 최명진 회장, 백운성조사 유훈실현후원회 한명옥 회장을 비롯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일체영가 천도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서 도문 스님은 “모든 중생들이 성불할 수 있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남북의 평화와 통일 기원하고 국운웅성을 발원하자”고 법문했다.

유철주 기자

## 대구 보현사, 핵심교리대법회

11월 7일, 대구 반월당 보현사 법당은 250여 명의 불자들이 가득 찼다. 동화사 직할 포교당인 보현사주지 원일가 11월 7일부터 12월 5일까지 매주 일요일 연거

법, 삼법인, 사성제 등을 법문하는 ‘불교 핵심교리대법회’를 마련한 것이다.

이날 법회에서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중앙승가대학교수 미산 스님이 12연기법을 중심으로 2시간 여 동안 법문했다(사진).

보현사 불교핵심교리대법회는 11월 14일 미산 스님의 12회 18개의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법문에 이어 21일과 28일은 인도 뿌나데학교 박사과정생 수로한 실상사 화엄학원 학장 재연 스님이 삼법인과 사성제, 팔정도를 강의한다.

배지선 기자 jsun@buddhapia.com

## 광주 용진사 개원법회·경로잔치


광주 용진사주지 정안가 11월 3일 개원했다. 개원법회에는 해향(광주 사암련회장), 법천(대구종 광주전남총무원장), 해령(전통불교영산회장) 스님 등 신도, 지역 주민 300여명이 참석했다.

아미타불 및 탱화 점안 이어 주지 정안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광산구는 한창 개발 중인 신도시로 불교의 대사회적 역할이 필요로 하는 지역이다”며 “지역민들과 함께하는 사찰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광주사암련 회장 해향 스님도 “포교 뿐 아니라 지역사회에 필요한 수행도량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격려했다.

이날 용진사는 개원을 기념해 지역주민들을 초청해 ‘주민위한 경로잔치’를 펼쳤다. 이준영 기자

### 신계사 불사 동참자



월서 스님



중상 스님

금강산 신계사 복원을 위해 조계종 호계원장 월서 스님과 신계사복원추진위원장 중상 스님(불교사 주지), 도교법사 주지, 영조(승광사 주지), 마근(신홍사 주지), 철안(봉선사 주지), 명성(전국 비구니회장), 前 포교원장 정현, 문화부장 성정, 재무부장 보정, 사서실장 심경, 교육원 교육부장 현관 스님 등이 신계사 추진위에 금일봉을 전달했다.

이밖에 △민주본 상임집행위원장 학담 △남북교류위원장 도각 △사무처장법경 △총무원·교육원·포교원 국장 스님 일동 △서울 금강암 호안 △의정부 석림사 보각 △공주 미타암 윤달 △평창 옥수암 뇌묵 △울산 석남사 영운 △제주도 보덕사 해전 △제주 월정사 지문 △군위 범주사 육문 △대전 청화사 효경 △서울 범음사 승혜 △부산 관음정사 범공 △안동 연미사 지일 △횡성 보광사 계호 △서울 청통사 진우 △수원 용화사 성주 △과산 각연사 중성 △수도암 성덕 스님 등이 성금을 전달했다.

(11월 10일 현재)

# 6 바이오연옥® 기능성돌침대

## 기능성 돌침대 - 돌침대의 생명은 석판!!

후레임(침대틀)도 고급소재로 멋이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과의 직결은 오직 석판일뿐입니다  
꼼꼼히 비교해 보시고 후회없는 현명한 선택을 하십시오

※ 게르마늄: 인체 내 활성산소를 중화시켜 노화를 지연시키고 생체조직이 산성화되는 것을 막아주는 기능을 갖고 있다고 한다.

바이오연옥은 이미 아주대 기계 및 산업공학부 회전전자파 측정 연구팀의 ‘수면인체 장애 방지시험’, ‘전자파 인체 장애방지 시험’, ‘회전전자파 측정시험’, ‘경락순환 구동력 측정 시험’ 및 ‘신진대사 촉진시험’ 등 수많은 품질검증과 요업(세라믹)기술원장 시험성적서 게르마늄 255ppm으로 이미 그 우수성을 인정받기도 했다.

‘바이오연옥매क्स 침대’와 관련해 경성대 자연과학대학 백우현 교수는 “바이오연옥 매क्स 건강 침대에서 내뿜는 고효율 원적외선은 인체의 피로회복과 자연 치유력 향상을 지녔다”며 “원적외선

의 운영효과를 지혜롭게 이용해 온 우리 선조들의 온돌문화에 바탕을 둔 획기적인 제품”이라고 평가했다. 또 충북대 한충수 교수 역시 “이론과 실험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상업적으로만 판매되는 제품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라며 “반면 이 제품은 인체의 신진대사와 식물 성장 및 저장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서울신문 기사 일부

**‘기존 돌침대 ‘석판’ 만 교환 가능합니다**

**A/S : (080)445-0005**  
**www.바이오연옥.com**

품질 검증 보증서

아주대학교 기계 및 산업공학부 회전전자파(氣)측정 연구팀 지도교수 오흥국 박사

한국경제

신뢰받는 성장 기업...한국경제에 이르는 CEO리더

수면병 ‘매क्स 건강 침대’로 다스린다

서울신문

바이오연옥 매क्स 건강 침대 ‘화제 집중’

중추신 매반식-춘천산 연옥 결합 원적외선-음이온 방출

혈액순환 원활, 신진대사 촉진, 근육통-어깨 결림 등 완화

품질 검증 보증서

게르마늄 255ppm

수면 인체장애 방지시험

품질 검증 보증서

전체 인체장애 방지시험

회전전자파(氣)측정시험

품질 검증 보증서

경락순환구동력 측정시험

신진대사 촉진 시험

진국대리점 본사 031)444-0005 서울 02)777-0105 부산 051)552-1959 청주 043)257-8929 속초 033)635-8323 강릉 033)646-3656 분당우리역(한국까르프) 2층 031)728-6250